



■ KIA·광주 상무·전남 드래곤즈 어린이 날 행사 다채

야구 볼까? 축구 볼까?

“애들이! 야구장 갈래, 축구장 갈래” 지역연고 구단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프로축구 광주 상무, 전남 드래곤즈가 5일 어린이 날을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한다.

- KIA - 어린이 1천명에게 과자·영화관람권 선물
- 광주 - 어린이 무료입장·정경호 팬 사인회 개최
- 전남 - 인형·마우스패드 선물, 아크로바틱 쇼도

KIA는 이날 오후 2시 한화와의 광주 홈 경기에서 어린이 무료 입장 행사를 실시하고 어린이 관중 1천명에게 과자선물 세트와 영화관람권, 솜사탕을 증정한다. 낮 12시부터는 그라운드 전광판을 통해 애니메이션 ‘아이시에이지’를 상영하

고, 호몰이 캐릭터와 함께 즉석 사진 촬영을 해준다. 주차장에는 에어바운스 어린이 놀이터와 페이스페인팅, 뽀에로 아저씨와 풍선아트 만들기 등 다양한 놀이행사도 준비한다. 이밖에 경기중 이닝 교체시마다 어린

이 관중을 대상으로 ‘빙고맞추기’ 행사를 실시, 경품을 나눠주고 클리닝 타임에는 호몰이 등 다양한 동물 캐릭터들의 스페셜 공연도 열린다.

전남 드래곤즈와 인천 유나이티드가 겨루는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도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들은 공짜 입장이다.

전남은 오후 3시 30분 경기에 앞서 인형, 풍선, 마우스패드 등을 나눠주고 1시 30분부터는 구장 앞에서 선수단 팬 사인회와 아크로바틱 쇼를 연다.

광주 상무도 이날 같은시간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 시티즌과의 경기에서 어린이 무료 입장 행사를 비롯해 슛골인 이벤트, 정경호 팬 사인회 등 다양한 ‘어린이 귀빈 모시기’ 행사를 벌인다.

/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힘차게 물살 가르며 2일 오전 한강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36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조정대회’ 남대 및 일반부 무티페어 결승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엽 내년에도 팀에 잔류시켜라”

요미우리 와타나베 회장 엄명 일본 ‘스포츠토포’ 보도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와타나베 쓰네키 회장은 “내년에도 이승엽(30·사진)을 팀에 잔류시켜라”는 엄명을 팀 관계자에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스포츠전문지인 ‘스포츠토포’는 2일 인터넷판에서 와타나베 회장이 개막전서부터 아시아 거포로, 역대 70번째 요미우리 4번 타자로 나서 4월 한달 팽타를 과시한 이승엽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요미우리에 남아줬으면 좋겠다. 반드시 잔류시켜라’는 뜻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올 시즌 후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한 이승엽을 잡기 위해 벌써부터 요미우리가 팔을 걷어 붙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역시 이승엽의 잔류를 강하게 희망하는 기요타케 히데토시 단장도 미스터 베이스볼로 추앙받는 나가시마 시게오를 예로 들며 “왕년에 나가시마 하면 요미우리 그 자체였다. 이승엽도 한국에서 그런 존재가 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에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도 요미우리의 4번으로, 한국 국가대표로 뽑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와타나베 회장과 마찬가지로 최상의 평가를 내렸다.

이승엽의 맹활약으로 요미우리 팬층이 늘어났으며 한국에서도 이승엽 중계 점유율이 25%에 이르는 등 한일 양국에서 요미우리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는 점에서 구단 수뇌부는 일찍부터 이승엽을 잔류시키는 쪽으로



가득을 잡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승엽을 잔류시키기 위한 요미우리의 계획은 다년 계약이다. 요미우리측은 이승엽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태도이나 다년 계약과 함께 연봉을 대폭 올리는 ‘성의’를 보여 이승엽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한국 본선 진출 여자월드컵 하키

한국 여자하키 대표팀이 제11회 여자월드컵 예선대회에서 뉴질랜드를 물리치고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한국은 2일(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대회 예선 B조 4차전에서 뉴질랜드(1승1무2패)를 5-3으로 제압, 3승1무로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4강 진출을 결정 지었다.

이로써 한국은 이번 대회 5위까지 주어지는 제11회 여자월드컵 본선대회(9월·스페인 마드리드) 출전권을 확보했다.

한국은 이날 김경희와 김미선이 나란히 두 골씩 넣는 활약에 힘입어 뉴질랜드를 이겼으며 3일 조 공동 선두인 미국과 예선 최종전을 갖는다.



- 3일(수)
- ▲메이저리그<뉴욕Y-보스턴>(07:55·Xports)
 - ▲NBA 플레이오프(08:30·MBC ESPN)
 - ▲챔피언스리그 축구 지역 예선<감바오사카-전북 현대>(14:00·Xports)
 - ▲전국대학배구연맹전(14:10·KBS1)
 - ▲일본 프로야구<한신-요미우리>(18:00·Xports)
 - ▲프로야구<두산-KIA>(18:00·SBS스포츠), <SK-삼성>(18:00·KBS SKY SPORTS), <현대-롯데>(18:30·MBC ESPN)

“만리장성 넘을 수 있다” 자신감 획득

■ 한국 男탁구 세계선수권 銀

‘중국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하지만 만리장성을 허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한국이 1일 독일 브레멘에서 8일간 열린 2006년 세계선수권대회(단체전)에서 세계 최강 중국의 독주를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남자가 대회 출전 사상 50년 만에 첫 결승 진출 꿈을 이루는 등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다.

중국은 예상했던 대로 강했다. 한국은 중국의 벽에 막혔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유남규 감독이 이끄는 남자 대표팀은 결승에서 중국에 0-3로 완패했지만 은메달을 획득하며 지난 1956년 도쿄 대회 처음 참가한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을 냈다. 특히 중국을 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건 은메달 못지 않은 큰 수확이다. 한국 남자탁구의 미래도 밝다.

유승민(24)과 ‘말형’ 오상은(29·KT&G)이 ‘쌍두마차’로 활약하고 있고 유남규 감독의 왼손 펜홀더 계보를 이은 이정우(22·농심삼다수)도 이번 대회에서 매서운 맛을 보여주며 차세대 예이스로 성장



유남규 감독이 이끄는 한국탁구남자대표팀이 1일 독일 브레멘 AWD홀에서 열린 2006 세계선수권(단체전)에서 준우승을 한 뒤 우승팀인 중국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했다. 임재현(21·KT&G)과 지난해 고교생 돌풍을 일으킨 이진권(19·삼성생명) 등 재목들도 많다.

현정화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팀도 8강에서 유럽의 ‘북병’ 벨로루시에 1-3으로 발목을 잡혀 4개 대회 연속 4강 진출 시도가 무산됐지만 4년 만에 5~8위권 남북대결에서 3-1 승리를 거뒀다.

북한과 단체전에서 맞붙어 3-1로 이겼던 지난 1991년 바르셀로나 월드컵이

후 15년 만에 맞은 강격스런 승리로 2002 부산아시아게임까지 이어졌던 7연패 사슬을 끊으며 역대 상대전적 10승10패로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그러나 ‘세대 교체’는 과제로 남았다. 김경아(대한항공)가 세계 10위권 실력자로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내고 있지만 29세의 적지 않은 나이로 체력 부담이 크고 무엇보다 김경아의 뒤를 이을 예이스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담양한과**에서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담양한과

☎ (061) 383-8283

- ▶ 정통상
- ▶ 고풍상
- ▶ 초가독상
- ▶ 대가독상

삼보전기온물판매

신규형 모집

☎ 278-0247

☎ 332-0707

☎ 324-6282

사무용의지 전문방식업체

토치 광주총판

www.torch.co.kr

사무용의지 전문방식업체

☎ 104-3323-5100